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육상 월드스타 달구벌 달군다

대구국제육상대회 오늘 개막… 파월·게이 100m 빅매치

〈파월〉

대구국제육상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공식 인터뷰에서 세계 육상의 별들은 기량 못지않게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24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자 장대높이뛰기 지존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는 "세계신기록을 36번 갈아치우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 남자 100m에서 50차례 이상 9초대를 찍은 아사파 파월(자메이카)은 "춤 동작이 기록에 도움을 준 것 같다"며 웃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스타들을 여럿 초청, 대회 질을 높인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날은 관심 종목에서 금메달을 다툴 라이벌을 데려와 토크쇼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 형식과 내용에서 화제를 불러모았다.

육상 스타들은 재기 넘치면서 때로는 진지한 발언으로 육상 후진국 한국의 유망주에게 피와 살이 될만한 화두를 던져주기도 했다.

◇게이-파월 "서로 존중"=20일 중국 상하이에서 끝난 그랑프리대회에서 9초69을 찍어 세계 2위를 굳힌 타이슨 게이(미국)와 파월은 한국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1년 만에 9초대 레이스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다.

세계기록(9초58) 보유자인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등장하기 전까지 100m를 양분했던 둘은 그다지 친하지 않다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미국과 자메이카에 떨어져 지낼 뿐 서로 존중하는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했다.

상대 장단점에 대해 묻자 파월은 "게이의 약점은 거의 없다. 다만 게이는 스타트가 늦지만 막판 스퍼트가 훌륭하다"고 평했고 게이는 "기록을 봐서 알 듯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파월의 약점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일 꼭 우승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파월은 "게이가 이기게끔 내가 늦게 뛰지도, 그렇다고 게이가 늦게 뛰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벅지 근육통이 있는 게이는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치는 게 목표다. 약간 피곤하고 허벅지도 쑤시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파월은 최근 자메이카 단거리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에 대해 "고유의 댄스 동작이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아시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환경이 좋은 자메이카로 올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신바예바 "체조, 스피드 훈련에 집중"=지난달 막을 내린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번 연속 바를 넘지 못해 등위에도 오르지 못했던 이신바예바는 "악몽이었다. 현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나머지 육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았으나 정신적으로는 많이 약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전화위복이 됐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울 동기부여가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신바예바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8월말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대회에서 5m06을 넘어 작년 올림픽에서 세운 5m5를 1년 만에 1㎝ 경신했다.

개인 통산 27번째 세계기록을 갈아치운 이신바예바는 "36번째 세계기록을 세우는 게 최종 목표"라며 활짝 웃었다. 체조선수를 하다 키가 갑자기 큰 나머지 장대높이뛰기로 전향한 이신바예바는 "장대를 들고 뛰는 첫 동작은 거의 체조 동작에 가깝다. 아주 중요하다. 도약할 때 탄력을 키우려면 1주일에 두 번은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움닫기 할 때 스피드가 훈련의 절반이다. 달리는 속도가 빨라야 넘을 수 있는 바의 높이도 올라간다"면서 기술과 달리기의 절묘한 조합이 지존의 자리에 오른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포스터 힐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12초51을 찍고 우승한 브리짓 포스터 힐튼(자메이카)은 올해 한국 나이로 35살의 노장이다.

포스터 힐튼은 "체력 관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100m 허들은 특히 기술을 요하는 종목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술도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기록을 지닌 선수는 38세 때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올해로 서른 살인 카멜리타 지터(미국)도 여자 100m 기록을 10초48까지 줄여보겠다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m에서 2회 연속 동메달을 딴 지터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끝난 그랑프리 대회에서 10초64를 찍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게이〉

세계 인라인 한국 사상 첫 종합 1위

안이슬 4관왕 등 금메달 14개 확보

한국 인라인롤러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24일 중국 하이닝 롤러파크에서 열린 2009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로드부문 3일째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 총 14개의 금메달을 확보해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종합 1위를 확정했다.

18~20일 트랙경기에서 금메달 7개를 딴 대표팀은 22~23일 취약 부문으로 꼽힌 로드경기에서도 금메달 7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트랙과 로드 부문을 아우른 종합 1위에 오르는 경사를 누렸다.

24일 계주에 금메달 4개가 남았지만 한국이 2위 콜롬비아에 5개 차로 앞서고 있어서 종합 우승은 결정됐다. 26일 마라톤은 국제롤러경기연맹 규정상 공식 메달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메달 12개가 걸린 이날 경기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1위를 독식한 강호 콜롬비아가 금메달 4개를 따며 한국을 맹추격했다. 전날까지 금메달 11개를 획득한 한국은 6종목의 결승이 끝날 때까지 금메달을 한 개밖에 추가하지 못해 역전 위기까지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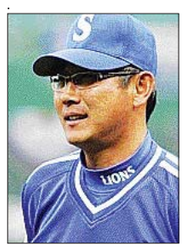
하지만 '장거리 여왕' 우효숙(청주시청)이 무릎 부상을 딛고 시니어 P(포인트) 10,000m에서 한국팀에 천금 같은 금메달을 안겼다.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른 우효숙은 트랙 EP(제외+포인트) 10,000m에 이어 로드 P 10,000m에서도 대회 3연패를 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안이슬(청주여상)은 주니어 여자 500m에서 43초141의 기록으로 1위로 들어와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남유종(안양시청)이 시니어 P 10,0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한국의 종합 1위를 확정했다. 남유종은 경기 초반 체력을 충분히 비축한 후 후반에는 2위 그룹에 월등하게 앞서며 연속해서 포인트를 따 1위로 골인했다. /연합뉴스

한화 이글스 새 사령탑에 한대화씨

김인식 감독 고문으로 위촉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계약이 만료된 김인식(62) 감독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신임 사령탑에 한대화(49·사진) 삼성 라이온즈 수석코치를 내정했다.

한화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인식 감독이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뤄냈고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를 4강 진출과 준우승으로 이끄는 등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해 고문으로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이어 "후임 사령탑을 물색한 결과 팀을 리빌딩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한대화 코치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는 정규시즌 종료 이후 한대화 코치와 계약 기간,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0년 시즌을 앞두고 독수리 군단 지휘봉을 잡게 된 한대화 코치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동국대를 졸업했고 1983년 OB를 시작으로 해태(1986년), LG(1994년), 쌍방울(1997년)을 거치며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냈다. /연합뉴스

포스트시즌 입장권 예매 오늘 오후 2시부터

2009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예매가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9일부터 시작되는 2009 CJ마구마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예매처와 입장요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매는 온라인쇼핑몰 G마켓(www.g-market.co.kr)과 전화(1566-5702)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시작 3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도 진행한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입장요금은 의자지정석, 블루지정석(잠실), P석(사직) 2만5천원, 레드지정석(잠실) 2만원, S.A.B석(사직) 1만5천원, 프랜들리.익사이팅존 3만원, 외야패밀리.바비큐석 2만원, 일반석 1만5천원,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1만원, 군경.중고생 8천원, 초등학생 5천원이다.

한국시리즈 입장요금은 일반지정석, 블루지정석(잠실), P석(사직) 3만5천원, 레드지정석(잠실) 2만5천원, S.A.B석(사직) 1만5천원, 프랜들리.익사이팅존 4만원, 외야패밀리.바비큐석 3만원, 일반석 1만5천원,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1만원, 군경.중고생 8천원, 초등학생 5천원이다. 입장권은 인터넷 예매와 현장 판매를 통해 1인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미녀 스타 키릴렌코의 강서브

24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한솔코리아오픈 단식 본선 2회전 경기에서 마리아 키릴렌코(러시아)가 프란체스카 스키아보네(이탈리아)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